

## 그라비아 인쇄, 식품 포장지 생산 전문업체 삼원기업

“33년간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확장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증설 이전은 새로운 시작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라비아 인쇄, 식품 포장지 생산 전문업체 삼원기업 강성공(63)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에 확장 이전한 새로운 사옥에서 “제

2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각오를 다졌다.

### 젊은 오퍼레이터 출신 회사 설립, 꾸준한 사세 확장

지난해 12월 신사옥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삼원기업은 “지난 1991년 3월 강 회장의 젊은 오



▲ 강성공 삼원기업 회장.

퍼레이터였던 시절부터 회사운영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할 당시 경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회사 인수에 대해 의사를 표한 후 적극 협의해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포장 개발에 헌신하고자 한 것"이 출발이 됐다.

이후 1997년 11월 (구)구로공단, 2000년 10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을 거쳐 2009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600평 규모에서 2023년 부지 약 2000평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확장 이전했다.

과림동에서 본격적인 연포장 그라비아를 시작

하고, 화성으로 이전하면서 8도기 그라비아인쇄기를 2대로 늘려 인쇄전문업체로 기반을 갖추고, 2공장 확장과 무용제1액형드라이기(코팅/합지)를 설치했다.

강 회장은 "외주공정을 줄이고 더 효율적이게 생산하고자 2020년 논솔벤1액형 드라이라미네이팅기를 증설했습니다. 1액형 기계에서 제품 다양성의 한계를 느껴 성신ENG사와 함께 협업해 논솔벤2액형 드라이라미네이팅기로 개조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확장 이전에서 그라비아 10도 인쇄기 1대, 그라비아 8도 인쇄기 2대, 논솔벤2액형 드라이라미네이팅기 1대, 솔벤트 드라이라미네이팅기 1대, 분단기 1대를 보유하게 됐다.

강 회장은 "1공장(그라비아인쇄)과 2공장(무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으로 확장, 이전한 삼원기업 본사 모습.

##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용제2액형드라이기)을 통합하는 한편 그라비아 10도 인쇄기 증설을 통한 다채로운 색상과 섬세한 명도, 명암 표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품의 다양성을 넓히고 자체생산으로 생산관리의 효율 실현을 위한 솔벤트드라이라미네이팅기 도입, 이물질 관리를 위한 클린룸설비 및 해충방제시스템 설치 등 꾸준한 사세 확장 및 생산시설 증설로 생산성과 생산관리 등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시설투자 + 기술력·노하우로 발돋움 본격화

과일, 야채 등 빠르게 유통되는 제품 표면 인쇄를 주로 생산하는 삼원기업은 그 동안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이번 시설 투자가 더해지면서 거래처 확대를 위해 전망이 밝은 분야를 파악, 적극 진입을 시도하는 등 보폭을 넓혀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디자인>인쇄도수에 맞는 금형제작>인쇄>라미네이팅>분단 및 성형 순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자사에 최신개발품인 성신-ROTO 그라비아 10도 인쇄기를 통해 섬세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어 원하는 디자인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 시킵니다”라며 자사만이 보유한 시설을 소개한 강 회장은 “과일이나 야채 등 바로바로 유통되는 제품들은 표면 인쇄를 해서 인쇄 층이 제품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농산물 포장은 대체로 단일필름 사용으로 분리배출에 쉽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술은 일반화된 연포장과는 다른 잉크와 희석제를 사용하고, 보다

더욱 민감하고 정교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삼원기업이 보유한 노하우로 꾸준히 오랜 기간 작업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기술로는 정전기 방지를 위한 대전방지코팅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코팅 등 제품군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코팅 기술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수인쇄 및 코팅기술은 자재 및 재고관리가 좀 더 필요하며, 기존생산 회로를 바꾸는 귀찮은 공정을 거치는 일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 방침 또한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했다.

이 같은 농·수산물 포장지를 포함한 각종 식품포장지 등 주요 생산 제품을 넘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화장품, 반려동물용품 등의 시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포장 제품 생산에도 전걸음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밀키트 등 간편식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만큼 늘어난 여가 시간으로 여행용 화장품 포장 등 다량을 소분한 제품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 화장품 소비가 여성에만 치우쳐 있던 것과 달리 성별과 나이, 국가를 넘어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이 일반화 돼 화장품 포장업계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혼 및 저출산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1~2인 가구가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 용품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밝혔다.

### 환경 고려한 제품생산·연구개발 실천 등 뒷받침

삼원기업은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어 이에 발맞춘 제품 생산으로 발돋움 한다는 전략이다.

강 회장은 “친환경 잉크를 인쇄에 적용함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알록스PET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재활용이 어려운 알미늄 대체품으로 사용하고 논솔벤트2액형 드라이라미네이팅으로 유기용제사용을 줄이는 한편 접착성을 높

이는 등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 4월에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성장의 윤활유 역할과 삼원기업의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연구개발 실천 등을 통한 다양한 인증, 특허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이다.

강 회장은 ”식품, 분말, 동물사료, 반도체부품 등 실링에 어려운 작은 물질을 포장할 때 쉽게하는 기술을 가진 특허입니다. LLDPE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실링접착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당사 기술로 보완 가능해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특허가 출원돼 있으며 등록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특허,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ISO9001,140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등 많은 인



▲ 강성공 삼원기업 회장이 공장내부 기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증을 취득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삼원기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협단체 활동 등도 성장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아직은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복안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 회장은 “직접적인 수출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미주 및 오세아니아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화성상공회의소 및 코트라(KOTRA)를 통해 교육 및 수출정보 수집, 참여할 만한 전시회를 조사하는 등 직접 수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포장지에 디자인 및 기능적 고급화까지 더한 차별화를 통해 하반기 수출시장에 도전 할 예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신규 거래업체·문의 늘어 매출 증대 매진”

급성장보다는 매년 10%씩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삼원기업이 제2도약을 다짐한 올해는 매출 증대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는 분위기에서다.

강 회장은 “올해 신 공장 시설투자를 바탕으로 비용절감 및 수월한 납기 관리의 경쟁력을 앞세워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공략해 시장성을 넓히고 제품품질 향상과 매출 증대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매출 목표를 전년대비 50% 상승해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증설하기만을 기다려온 주변 업체들로부터의 새로운 문의와 신규 거래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 신뢰·사람 우선한 개선, 변화, 발전 노력

삼원기업의 신뢰와 사람을 우선한 경영방침, 회사 이미지만큼이나 회사에 직결되는 오너 및 임직원들의 이미지에 심혈을 두고 이에 따른 개선, 변화, 발전의 노력들도 이 같은 배경이 되고 있다. 강 회장은 “품질에 대한 신뢰와 시간에 대한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단가와 품질에 타협하지 않으며 약속된 고품질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함께한 임직원들과 오랜 시간 신뢰로 회사를 일궈왔고 수많은 협력사들과도 두터운 믿음으로 거래해 왔습니다. 보다 나은 품질과 납기에 대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고객사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신뢰를 강조했다. 사람에게 대한 경영방침도 마찬가지다.



▲ 그라비아 인쇄기(8~10도까지 구현 가능)

강 회장은 “33년간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확장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신념을 갖고 경영해 온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치않는 마음으로 항상 정직과 신뢰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너 및 임직원들의 대외적 이미지 관련해서 강 회장은 “‘그 사장님 인상이 온화하고 괜찮다’, ‘회사 분위기가 좋다’ ‘어려운 납기도 잘 맞춘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과도 상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토대로 한 밝은 인상의 인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량이 숙명 같은 그라비아 인쇄에서 불량이 없을 때 안타깝지만 직원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다독이며 오퍼레이터 출신으로서 직접 다시 색상 등을 맞추고 인쇄를 하면 직원들은 오히려 미안해 합니다. 그렇게 선후배로서 기술교류도 하고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서

로 도우며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합니다”라고 말했다.

### “사람이 재산” 고용·인력에 주안점

“사람이 재산”이라고 강조한 강 회장의 고용·인력, 복지 개선에 주안점을 둔 점도 유효했다. 외국인 노동자나 주중에 근무하고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내국인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어 숙소제공과 생일 때 현금지급 등 복지 부분에도 공을 들여 꾸준하고 안정된 생산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강 회장은 “이전 공장 규모가 작고 낙후돼 큰 맘 먹고 이전했습니다. 이번에 확장, 이전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직원들 숙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과 3층에 1인 1실의 방 20개를 마련했습니다. 2층은 내국인이, 3층은 외국인이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하기 전의 허술했던 숙소와 달리 신축이어서 깔끔하고 냉난방이 잘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외국인의 경우 군대에서 선임자가 제대하면 후임자가 입대하는 복무기간이 있는 것 처럼 일



▲ 확장이전식에서 삼원기업 강성공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 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해 일이 익숙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가 새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르쳐주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했다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평균 근무기간도 긴 편입니다. 내국인 가운데 15년 째 근무 중인 60대 기술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포장 업계의 중소기업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삼원기업에도 강 회장의 첫째 자녀인 장녀 강은혜 씨가 15년간 가업 승계를 목표로 대표이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직원 포함 모두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 회장은 “회사가 한 발 한 발 성장해 가며 직원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각자의 다른 작업스타일과 습관, 환경 등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도 있습니다”라면서 “회사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로 함께 아이디어와, 회사에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더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며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었을 당시에 끈기와 이해로

직원들이 함께 이겨냈고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 공장총량제 규제로 시공 지연, 화재 등 위기 극복

삼원기업의 위기는 또 있었다. 화재로 인한 좌절과 매입했던 부지의 공장총량제 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및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다.

강 회장은 “TMF 때는 여러 동종업계가 힘들던 상황에도 현장일선에서 꾸준히 매진해 성실함을 보인 결과 주변의 도움으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999년 본사가 서울 금천구 구로공단에 있을 때 화재로 인해 크게 좌절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터 계획하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이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이번에 확장 이전한 경기도 화성 부지를 매입했지만 공장총량제 규제로 인해 시공이 늦어졌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건축자재 등이 인상되면서 금리가 높아져 이자부담도 겪었지만 일정부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 그라비아 인쇄기

### 고금리 시대 높은 이자부담 등 개선되기를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선, 보완되기를 바라는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국가에 헌신한다는 각오로 임하며 중소기업을 경영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은 듯합니다. 제조업 인력난으로 내국인 고용보다는 외국인 고용이 수월한 실태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짧게 3년에서 길게 5년까지 거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을 하면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잃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내국인 고용정책처럼 인건비인상에 비례한 외국인 고용정책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금리 시대에 60~70%를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부담이 됩니다. 우리와 같이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여 대규모투자를 하고, 고용증대에 힘쓴 업체에게 저금리 장기자금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호소했다.

###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향해 지속 변화 노력

위기를 극복한 동력으로 제2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는 삼원기업은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변화 노력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강 회장은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회사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모든 결정과 행동을 투명하게 하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인 학습과 개선으로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취향에 따라 소비 패턴이 세분화됐고 다양한 소비패턴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사에게 자사 제품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는 만큼 다양한 포장지는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그만큼 생산자와 고객사의 환경에 대한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고객사에게 먼저 친환경적인 포장지를 제안하고 디지털 인쇄기 도입으로 다품목 소량생산을 실현시켜 효과적인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생활은 더 윤택해졌고 산업은 큰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일함에 환경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포장지에 대한 환경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자사 또한 업계의 일원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개발진들이 개선점을 찾으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잉크, 수성잉크, 생분해필름, 단일필름포장지, 논솔벤트라미네이팅 등 수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더욱 더 재활용에 용이하고 환경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중입니다. 자사 또한 신제품 연구개발에 동참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해 환경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